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2027년 미국 경제 전망'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고물가로 미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최저치
- WSJ: 연준 의사록,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시사… 10월 인상은 급하지 않아"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채권시장 매도세 속 10년물 프리미엄 급등에 우려
- WSJ: 차입 비용 높아 미 경기침체 가능성

[물류]
- WSJ: 디젤 가격 폭등 불구…전기 트럭 고전

[중동 전쟁]
- WSJ: 이란과 후티 연쇄 공격에 호르무즈 긴장 고조

[트럼프 관세]
- WSJ: 트럼프 ‘강제 노동’ 관세에 교역국들도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
- Politico: 트럼프 지지자 25% "공화당 승리 위해 트럼프와 거리둬야"
- NYT: 트럼프 행정부, 마이크로소프트 영주권 스폰서십 정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월마트, 수십억 달러 투입한 물류 자동화에 난항
- CNBC: 델타항공, 유가 급등에 올해 전망 하향… "수요는 견조"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YahooFinance: Consumer sentiment falls to 5-month low as frustration mounts over higher costs
고물가로 미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최저치

- 미국 소비자들의 고물가와 높은 생활비로 불만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오늘 금요일 미시간대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는 46.3으로, 전달(48.1)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 조사 관계자는 “미국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해 초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고물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 인플레이션 외에도 40조불의 연방 부채, 6%에 육박하며 대출 부담이 높은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이 소비심리 위축을 키우고 있다.

기사

WSJ: Fed Minutes Signal Further Rate Increase This Year, but No Urgency for October Hike
연준 의사록,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시사… 10월 인상은 급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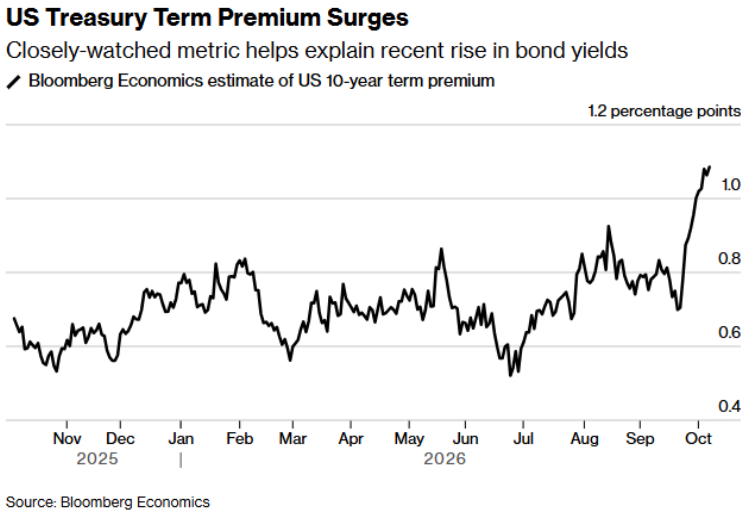
- 연준 관리들이 연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다가오는 10월 회의에서 바로 인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관리 대다수는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결정은 지표에 따라 신중히 내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최근 관리들의 발언과 예상보다 완만한 9월 고용 보고서는 10월 동결 전망을 뒷받침하며, 일부 관리들은 결정이 12월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 Sees an Ominous Sign in Bond Market’s Latest Selloff
월가, 채권시장 매도세 속 10년물 프리미엄 급등에 우려

- 미 국채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월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간 프리미엄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재정 위기 등 예측 불가한 위험에 대비해 장기 채권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금리다.
- 이 프리미엄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장기 금리는 고점에 묶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물가와 좋은 경기, 정부·기업의 채권 발행 폭증에 더해 시장의 금융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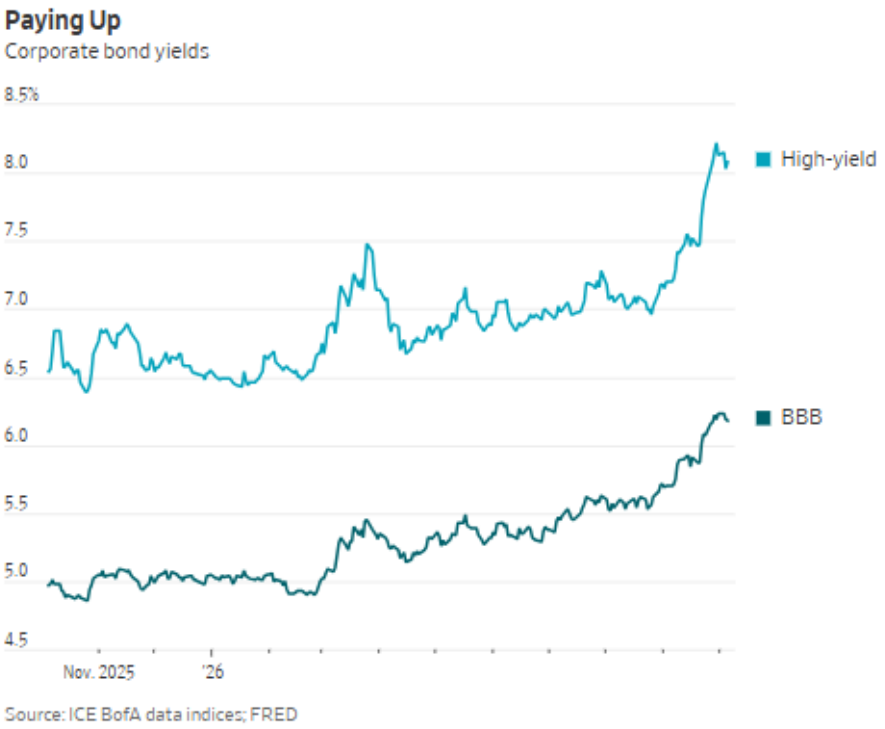


기사

WSJ: Borrowing Costs' Double Whammy Boosts Recession Odds
차입 비용 높아 미 경기침체 가능성

- 미국 경제의 충격 흡수 여력이 약화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때에는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쏠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 2001년 경기 침체 당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 가산금리'는 1.8% 올랐지만,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2.8%나 크게 떨어진 덕분에 기업이 실제로 낸 최종 이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다. 완충 장치였던 국채 금리 하락 없이 신용스프레드(회사채와 국채 금리 차이) 마저 커질 경우, 기업과 가계

는 차입 비용 폭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국채 금리도 신용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



기사

[물류]

WSJ: Electric-Truck Drivers Struggle to Compete, Even as Diesel Prices Surge
디젤 가격 폭등 불구…전기 트럭 고전

- 디젤 가격이 최고치로 오르고 있지만 전기 대형 트럭은 여전히 디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 배터리 충전에 시간을 빼앗겨 운행 시간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화물 운송업체들은 LA·롱비치 항만에 친환경 트럭 운용 지원금

을 요청했다.
- 두 항만은 친환경 차량의 컨테이너 운송 시 회당 $60(연 최대 $36,000)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인프라와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충전 대기로 인한 도로 운행 손실이 크다 보니 운송업계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사

[중동 전쟁]

WSJ: Iran and Houthis Try to Regain Upper Hand in Hormuz With Spate of New Attacks
이란과 후티 연쇄 공격에 호르무즈 긴장 고조

-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이 카타르 인근 유조선과 사우디 리야드 공항을 각각 공격하며 국제 유가가 치솟았다.
- 후티 측 공격으로 리야드 공항 내 항공기가 파손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렸다.
- 이번 연쇄 공습은 중동 해상·공중 물류망 리스크를 키워 시장 주도권을 다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진행을 이유로 11월 중간선거 전 군사 공격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기사

[트럼프 관세]

WSJ: Trump’s Tariffs Put a Spotlight on Forced Labor. It Isn’t Going Away.
트럼프 ‘강제 노동’ 관세에 교역국들도 규제 강화

-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글로벌 보편 관세를 재도입하면서 통상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캐나다·콜롬비아·인도 등 주요 교역국들도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자국 기업의 수출길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강제노동 금지법과 단속 기준을 강화

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한편 민주당 소속 20여 개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들은 행정부가 강제노동 이슈를 명목상 핑계로 삼아 관세를 올려 부과하려 한다면서 연방법원에 관세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Politico: Even Trump voters think Republicans should split from the president to win
트럼프 지지자 25% "공화당 승리 위해 트럼프와 거리둬야"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24년 트럼프 지지자 4명 중 1명(26%)이 공화당 후보들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인플레이션, 갤런당 $4의 기름값, 7%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동 정세 불안, 대(對)캐나다 무역 전쟁 등이 공화당 후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한 예로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 Michael J. Rogers는 "캐나다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며 관세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

NYT: Microsoft Suspended From Green Card Program as Trump Officials Widen Fraud Drive
트럼프 행정부, 마이크로소프트 영주권 스폰서십 정지

-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및 영주권(PERM) 제도 남용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의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 이용을 정지시켰다.
- JD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국민 6,000명을 해고하면서 6,300여 건의 H-1B 비자와 3,000여 건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인 인력을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H-1B 신청의 80%가 기존 직원 신분 연장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제재를 받았다.
- 이 같은 조치는 어도비, Infosys 등 다른 테크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For Walmart, Replacing Humans With Robots Is a Multibillion-Dollar Struggle
월마트, 수십억 달러 투입한 물류 자동화에 난항

- 월마트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물류창고 자동화 전환이 규격이 상이한 박스 처리, 로봇 고장 등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람에게 쉬운 소포장 개봉·분류 작업이 로봇에는 큰 과제로 작용해 비용 상승과 오작동이 빈번하다. 물류센터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설비를 개조하면서 기술적 과부하도 높은 상태다.
- 아마존과의 배송 경쟁과 높은 이직률로 자동화 투자는 필수적이나, 월마트는 인력 감원 대신 기존 인력을 시스템 관리·정비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obots have been introduced to the Seymour warehouse to help move cases of merchandise into storage.

CNBC: Delta Air Lines cuts 2026 forecast on fuel surge, but CEO says demand is still strong
델타항공, 유가 급등에 올해 전망 하향… "수요는 견조"

- 델타항공이 유가 상승 여파로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월스트리트 실적 전망치를 밑돌며 2026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Ed Bastian 델타항공 CEO는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인건비에 이은 2대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여객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며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권 가격도 추가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479.50	+247.8	+0.48%
US 500	7,798.60	+33.1	+0.43%
Dow Jones	51,491.25	+259.61	+0.51%
S&P 500	7,798.60	+33.24	+0.43%
Nasdaq	27,333.98	+140.64	+0.52%
S&P 500 VIX	14.93	-0.48	-3.11%
Dollar Index	102.083	+0.153	+0.1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23/32	5.619	0.010
10-Year Note	4.625	-2/32	5.261	0.026
7-Year Note	5	-2/32	5.148	0.037
5-Year Note	5	-24/32	5.035	0.041
3-Year Note	4.875	-1/32	4.940	0.045
2-Year Note	4.75	-1/32	4.810	0.050
1-Year Bill	0	1/32	4.468	0.041
6-Month Bill	0	1/32	4.332	0.019
3-Month Bill	0	0/32	4.162	0.014
1-Month Bill	0	2/32	4.033	0.078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43.40	1,503.60	848.13	200.69	1.1222	102.29
+2.40 (0.18%)	+1.61 (0.11%)	-0.52 (0.06%)	+0.62 (0.31%)	+0.0027 (0.24%)	+0.15 (0.15%)
10. 10. 00:43 ● 실시간	10. 10. 00:43 ● 실시간	10. 10. 00:43 ● 실시간	10. 10. 00:43 ● 실시간	10. 8.	10. 9. 11:33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43.40
1,343.4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